

전국 반나절 생활권... 남도관광 뜨고 지역발전 일대 전환점

오는 4월 2일 호남고속철도(호남선 KTX 1단계·용산~송정역) 완전 개통을 앞두고 광주·전남 시·도민들 사이에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속철 소외지역이란 오명을 벗어 던지고,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맞이하게 됐기 때문이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은 호남 지역경제 발전의 촉매제 역할은 물론 수도권과의 접근성 부족으로 저평가됐던 남도관광 산업 등에도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세계디자인총회 개최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광주·전남으로써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KTX호남선 개통이 '천군만마'나 다름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KTX가 멈추는 송정역 등 정차역과 주변 지역도 개통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 국토부, 코레일 등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는 내달 1일 개통식을 시작으로 다음날부터 첫 공식 운행에 들어간다.

지난 2006년 첫 삽을 뜬 오송역~광주 송정역 호남선 KTX 1단계 공사(총 연장 184.5km)가 마무리됨에 따라 광주 송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용산역까지 최단시간 기준으로 1시간33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47분으로 2시간 이내에 서울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도 최소 2

호남선KTX 모레 개통

광주~서울 최단 90분대
목포·여수 등 관광 활성화
유통·의료 '역류' 해결 과제



시간14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되는 등 3시간 이내에 전국 주요 도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점에서 시공간적 장벽 붕괴에 이은 속도혁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에서 나주역까지도 1시간 50분대면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전까지 입지

원과 주민의 업무·교통 편의 향상 등 빛가람 혁신도시의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권 교통의 종착역인 목포역 역시 KTX 개통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목포는 특히 인근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완도, 진도 등 다도해를 연결시켜 주는 관광 허브 역할을 도맡으면서 남도관광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이에 대비해 목포역을 중심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도심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 용산에서 여수까지도 2시간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되는 등 전라선도 40분 단축돼 여수(엑스포)와 순천(국제정원) 지역도 전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통과 의료 등 일부 산업은 자칫 체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수도권 역외유출 현상인 이른바 '빨대효과'를 최소화하고, 외부 관광객 유입 등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정차역과 가까운 도시를 묶은 KTX 전용 관광상품, 도시탐방 시티투어, 광주-전남-전북-제주 연계 관광 상품 등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 중에 있다.

강신기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주는 물론 전남·북 지역 소외를 딛고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교두보이자 지역 발전에도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남·북과 함께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 27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력과 광주시·전남도의 '2015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공동 투자 설명회'에서 조한익의 한전 사장이 110여개 참여 기업 관계자들에게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한전 제공>

광주시-현대차그룹, 송정역전 매일시장에 문화·디자인 입힌다

광주시-현대자동차그룹이 손잡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전통시장인 송정역전매일시장에 문화와 디자인을 입히는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폐쇄위기에 내몰렸던 '강원도 봉평장'을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 현대카드사에서 콘셉트와 디자인 기획을 담당하기로 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7일 광주시 광산구 협동조합의 집에서 송정역전매일시장 상인들을 초청해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송정역전매일시장은 1940년대부터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명성을 이어왔지만, 현재는 노후하고 침체한 지역시장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송정역전매일시장을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과 젊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설명회
봉평장 살린 현대카드가 맡아
광주대표 문화관광 시장 육성

층이 즐겨 찾는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시장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송정역을 중심으로 호남선KTX 개통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관광객을 유인할 신선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도 접목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이 지역 소상공인들과 광주시, 광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송정 삼색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업설명회에서 "송정역전매일시장 창조경제화 사업이 1년여에 걸쳐 진행되며, 전통시장 창조경

제화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 고유의 매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송정역전매일시장 창조경제화 사업의 콘셉트와 디자인 기획을 강원도 봉평장 프로젝트를 맡았던 현대카드가 담당하기로 했다. 현대카드는 '사회환원' 사업으로 강원도의 '오지(奧地)시장'이란 오명과 함께 폐쇄 직전이었던 봉평장을 부활시키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2013년 10월부터 1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로 봉평장 살리기를 도운 현대카드는 봉평장 고유의 전통과 색깔을 살리고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 방문객 2배 이상, 매출액 30% 이상 증가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현대카드는 우선 거창한 시설 현대화 사업보다는 소비자들이 불편해 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내 없애고, 시장 내 가게마다

독특하고 예쁘게 재단장했다. 특히 청결한 위생, 상품 진열방식 현대화, 싸구려·원산지 허위표시 없애기 등을 강화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동력이 되도록 했다. 현대카드는 봉평장 프로젝트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송정역전매일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함이 가득한 전국 유일의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현대카드는 또 동구 대인시장의 일부 점포를 고쳐 친화적으로 꾸미고 판매기법, 포장, 진열방법 등 매출 증대를 위한 경영 개선 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

박동희 광주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송정역전매일시장 창조경제화 사업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와 함께 고객편의를 강조한 상인주도형 창조경제화 모델로 삼았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빛가람에너지밸리에 투자 하세요"

한전·광주시·전남도 서울서 공동 투자 설명회

한국전력과 광주시, 전남도가 공동으로 지난 27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15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공동 투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LS전선, 일진전기 등 전력 및 에너지 관련 기업 대표 및 임원 150여명과 전력그룹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조한익 한전 사장은 투자설명회에 임하는 심정을 "긴 세월을 함께할 동반자를 구하는 마음"이라고 밝히며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계획을 소개했다.

한전은 우선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펀드)과 기술금융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에너지밸리 센터(거점)'를 건립, 각종 컨설팅 업무를 통해 이전 기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임동철기자exian@kwangju.co.kr

또 광주·전남지역 R&D 협력 사업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협력 공동개발 과제에 연간 100억원을 투자하고 지역인재 채용기회 확대,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하여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전은 민간기업과 함께 스마트 홈, 스마트 드라이브, 스마트 캠퍼스 등 미래형 에너지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광주·전남 지역 송·배전 및 IT분야에서 지역 기업의 일거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전은 우선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펀드)과 기술금융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에너지밸리 센터(거점)'를 건립, 각종 컨설팅 업무를 통해 이전 기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임동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햇살론대출
- 임대보증금대출
- 정부정책자금대출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